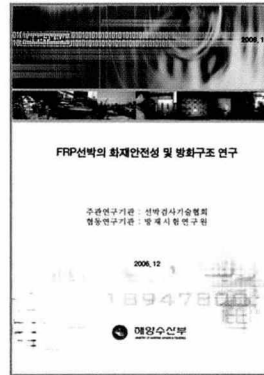


### 선박안전기술개발사업 “최종연구보고서” 발간

선박검사기술협회(이사장 김성규)는 지난 3월 6일 2006년도 해양수산부 선박안전기술개발사업 중 협회가 주관하여 수행한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최종연구 보고서를 발간·배포하였다.

이번에 협회가 발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내용은 ‘FRP선박의 화재안전성 및 방화구조 연구’, ‘소형어선 및 화물선의 복원성 기준 연구’, ‘선박 설비기준 개선방안 연구’ 등 3건으로서 해상에 있어서의 해양사고 방지와 인명안전에 관한 선박의 시설기준을 개선하고자 개발한 것들이다.



- FRP선박의 화재안전성 및 방화구조연구 보고서



- 소형어선 및 화물선의 복원성기준 연구 보고서

한편, 검사협회는 이번 연구결과에 대한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평가결과가 아주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동 연구결과 제시된 배의 길이 24미터미만 선박의 복원성기준과 FRP 적층용 난연수지의 형식승인시험기준 등을 토대로 관련제도가 개선되면 소형선박의 전복사고 및 화재사고 예방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베트남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전문가과정 참여



- 전문가 과정 교육 -

선박검사기술협회(이사장 김성규)는 지난 3월 5일부터 3월 18일까지 국무총리실 산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베트남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전문가 과정에 해외사업개발 전문가(사업기획팀 홍환표 과장)가 참여하였다.

이번 과정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용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베트남의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전문가 양성과정으로서, 베트남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기간산업 등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교육과 베트남 현지 연수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협회의 관심분야인 베트남의 선박관련 기술 수준 및

관련 산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기회가 되었다.

한편, 검사협회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알제리 선박안전기술지원 KOICA사업 참여에 이어 이번 과정 참여를 통하여 베트남에 대한 지원사업을 모색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협회의 국제적 위상강화는 물론 향후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 등 해외사업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DWT 6,000톤급 아스팔트운반선 “건조도면설계 용역계약 체결”

선박검사기술협회(이사장 김성규)는 지난 3월 14일 경남 마산소재 (주)지오해양조선과 DWT 6,000톤급 아스팔트운반선에 대한 건조도면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협회가 이번에 설계용역을 체결한 아스팔트운반선은 총 4척으로서, 용역금액은 413백만원이고, 선박의 주요제원은 길이 102.00미터, 너비 18.20미터, 깊이 10.00미터이며, 설계도면의 종류는 기본설계를 포함한 상세설계분야 약 163종에 달한다.

한편, 검사협회는 이번 용역 사업을 통하여 아스팔트운반선 설계 기술능력 확보는 물론, 중대형선에 대한 용역수입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용역수입의 증대와 사업범위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